

서울 교육과정심의위원회

I. 전공개편의 필요성

전공개편은 학문적 발전 추세 혹은 교수의 인적사항변동(퇴직, 해외연수 혹은 사임등)이 있을 때 제기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문적 발전추세를 어느정도 반영하면서 전공개편을 하느냐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4년차의 전공개편은 60, 70년대대 구성된 교과과정을 그대로 둔 채 5~10년 된 강의노트를 가지고 강의의 진행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전공개편을 전공개편위원회라는 문제점을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에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전공개편은 각 계열별, 과별 특성이 존재하지만, 보편적인 전공의 문제로서 첫째, 전공교과과정상의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문제(사회 진출)에 대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둘째, 전공교과 교수들의 전공에 대한 전문성 부족, 셋째, 지배이데올로기 주입

식 전공내용, 넷째 전공교과와 학년별 불균형 배치문제등을 들 수 있다.

강의를 듣는 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 고교때의 주입식 교육과 대학에서의 강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여러요인이 작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학생이 주체가 되어 전공을 진행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를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학생들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무성의하게 강의의 듣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전공개편의 필요성은 바로 교수·학생의 상호발전을 하기위한 요구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전공개편의 상황

현재 32개 학과 중 전공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과는 23개과에 이르고 있다.

학과별로 차이점은 있지만 대부분 전공개편 이전에 시도한 과, 방학중에 연구작업을 수행한 과, 개강과 더불어 활기차게 개편을 진행하는 과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들 과들은 전공개편을 하기위하여 학우들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 과토론회, 총회등을 통하여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전공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과들은 학우들에 의해 수업된 의사를 모아 개편안을 작성하고 해당학과 교수와 협의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공개편 뿐만 아니라 교수구체제를 문제

몇몇 교수가 결정된 임의 체제에 대해 강의 내용과 교수전공등이 맞지 않는다는 점등을 들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공통적인 전공개편전행은 첫째, 민주적 전공개편 둘째, 교수·학생간의 대화통로 개설 셋째, 교수·강사 채용시 학생참여등의 조치를 강제로 다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III. 전공개편의 과제

전공개편의 과제는 전공개편뿐 아니라 전체적인 학원자주화투쟁속에서 전공개편이 차지하는 역할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있다.

학원자주화투쟁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학원사상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든 지배이데올로기의 주입적인 동시에 식민지 지배를 가능케 하는 재생산의 매개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전공과목 개편 어떻게 해야하나

교심위 활동 점검 및 올바른 방향성 진단

따라서 전공개편을 한다는 것은 교과내용이나 교과구조를 변경한다기보다는 전공개편의 형식일 뿐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담하고 있는 교수·강사를 암시적이고 자질있는 사람으로 충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강사 채용에 있어 학생의 참여는 학생이 학사행정에 참여하는 것과 서열상에서 거친 사람에 대한 공개강의를 통한 참여여도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물론 학생이라는 한계성을 인정하면서도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바로 학생참여의 목적이다.

이상과 같이 전공개편의 필요성과 그과제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으로서의 자기위치를 자각하며 모든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 장 규

(신방·3)

1. 들어가며

89년과 90년 상반기를 경과하면서 전개된 대학자주화협의회(이하:대자협)건설 투쟁과 교양교과개편 투쟁의 성과들을 안으면서, 90년 하반기에 전 공개 판과 총 장 임 기 만료 라는 커란 두

구조를 혁신하고 과의 구성원이 자주적으로 과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아가면서 기존 단위로부터 학우들의 자주성이 실현되어질 때 가능하다. 이 투쟁의 과정에서 과의 재반 구성원들(교수, 대학원생들)을 학원자주화투쟁의 주체로 세워낼때 힘을 가지게 되며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2. 학원자주화 투쟁에서 과의 위상과 역할

교수와 학생은 해당학과 학문활동을 매개로해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대학에서의 학과는 대학의 위상과 역할의 모태가 되고 대학의 내용성과 학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것

으로 부터 학우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는 과의 생활과 학문활동을 매개로 해서 가장 관심있고 집중적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리하여 학원자주화 투쟁도 과로부터 지배구조의 사상적·인적·물적

교과목 개편 통한 과의 자주적 운영 추구

과단위 주체의 자발적 참여가 향방 결정

이론과 실험 실습의 불일치 및 부재등이 큰 문제로 되며 기타 교과구조, 이수구분, 학년별배치, 전공과정의 1차적 자기결정등이 나타나고 있다.

4. 전공개편투쟁의 현황 및 과제

1)전공개편투쟁의 현황
몇몇과에서 방학중에 전공개편을 위한 준비 작업이 있었고 대부분의 과에서 2학기를 시작하면서 교과심의를 건설과 전공개편작업에 착수, 현재 총34개 학과 중 17개 학과에서 교심위를 건설하고 전공개편 작업을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두차례의 전

현까지 진행된 전공개편투쟁을 평가하면서 가진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은 전공개편투쟁을 진행함에 있어 대중적 사업속에서 대중적 관심을 모으고 '과교실의'를 건설하고 모든 과 학우의 지혜와 힘을 모아 전공개편투쟁을 전개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대중적 사업작업속에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학우대중의 지혜와 힘에 의거해서 전공개편투쟁을 벌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전공개편과 이후 투쟁으로의 상승발전과 학습권쟁취를 하에 참여권과 자주성을 실현하는 학원자주화투쟁을 평가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몇몇 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립적 사업작업을 혁신하고 전체학과가 연대하여 통일·단결된 투쟁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관한記者)

황 수 문

(우주·4)

되찾아야 할 수업의 조화

음대·교육환경개선 절실하다

음악대학의 강의실, 연습실 등 공간부족이 계속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어렵게 전방되고 있다.

현재 음악대학은 기악과·성악과·피아노와 3개학과의 학생 6백여명, 교수·강사 1백여명, 대학원생 등이 사용하고 있으나 본관3층에 위치한 대학원강의실 1개를 포함, 전용수업강의실은 이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 외에도 연습실 등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시간표 조정, 학생수용 등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1학점짜리 전공이라도 강의시간수가 3~4시간씩 해야하는 실정인 경우에는 더욱 심각해 8교시를 넘어서 수업이 진행되는 예도 있다.

또한 공연을 위한 학내시설물도 극도로 부족하다. 음대 리사이틀을 심포니실 등으로 충분한 공연준비 및 합동연습(합주, 합창 등)을 보장해주지 못하며, 이것마저도 공연을 위한 부대시설은 거의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음악감상실 도벽 및 보수, 심포니실 방음판 설치 등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공간의 절대부족현상을 해결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물은 반지하에 있어 악기, 노랫소리, 소음 등이 섞여 혼용이 되면 구별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6백여명이 5개의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보면 불편한 점이 많다. 강의가 끝나거나 시작될 시간에 이동하는 소리들이 수업에 지장을 주는가 하면 강의실간의 강의내용과 악기음이 혼재돼 학습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또 50여개 정도의 연습실은 평소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시험때가 되면 붐비게 된다. 이것조차 대부분 강사실로 지정돼 학생연습 연습실은 없는 실정이다. 일부 타대학의 경우 교강사실에선 레슨만 하고 학생연습실은 따로 있다. 한편 우리학교 연습실은 부족한 만큼이나 방음시설이 미비해 서로에게 수업방해를 초래하게 되기도 한다.

이밖에도 행정·교무시설, 학생자치공간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상이다. 학생실, 교무실, 교강사실이 각각 있으나 조교실이나 학과사무실 등은 없어 조교들이 교강사실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다. 단대생 생활학과 동아리방 1개가 교강인 학생자치공간은 과학생회실, 동아리방, 휴게실, 도서관 등 공간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음대건물내 공간은 늘일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개조



강의실 부족으로 수업분위기 흐려 건물신축등 근본적 해결 모색 필요

대뿐만 아니라 전 학과차원에서 누적돼온 상태지만 특히 음대는 더 심각하다. 우리학교와 비슷한 연세대는 새로 음대체제 건물을 짓고 있으며, 서울대의 경우 학내에서 공연을 소화하고 있는 반면 과차원만 해도 단독으로 중앙당아상을 소유하고 있다. 이번에도 음대내 공연을 호암아트홀 등 외부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학교는 크라운관이 냉난방·방음시설이 되어있지

“경희사랑! 여기에 있습니다”

대학주보 정기구독안내

올해로 우리 '경희'는 개교41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개교 이후 나날이 성장을 거듭하여 국제적 규모의 대학으로 발전해온 '경희'는 앞으로도 더욱 미래 지향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희 가족 모두의 관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모교 신문인 '대학주보'는 창간 이후 지금까지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질책속에 모교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국내 최고의 대학원론으로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대학주보가 앞으로 모교 발전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다하고, 대학원론의 정상이라는 현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대학주보에서는 창간 35주년을 맞아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을 결집하고, 대학주보를 통해 모교의 소식을 받아보고 싶어하는 여러 동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학주보를 보내드리기 위해 대학주보 정기 구독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학주보 정기구독 신청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우측에 있는 정기구독 신청서에 기재사항을 기입하신후 우편이나 FAX를 이용하여 매일 25일까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
◇신청주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국
◇신청전화: (02)961-0094, 963-5849 (장보연 신문방송국 간사)
◇FAX: 963-5849
[구독료 납부방법]
다음 은행계좌로 입금시키거나 소액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은행환: 2. 소액환: 을 이용하실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소액환'으로 바꿔 우송해 주시면 됩니다. (전환환도 가능)
[정기구독료] 10,000원 (1년 25회 276원 1부씩 기준)

대학주보 정기구독 신청서

성명	성	명	졸업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신청인	주	구독료 납부 주소	
	소	신문 발송 주소	
	구독기간 () 년간 19 년 월째부터		
구독료 결제방법	신청 부수 부		
	구독료 결제방법 1.은행입금 () 2.우체국소액환 ()		

위와 같이 대학주보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기타연락사항